

『IFRS재단 이사회 서울 총회 공식 만찬』

# 축 사

'22. 10. 26.(수) 19:00~22:00 / 더 플라자 호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IFRS재단 이사회 서울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지난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래  
12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총회라고 들었습니다.

먼 곳에서 한국까지 와 주신

Erkki Liikanen(얼키 리카넨) IFRS재단 이사회 의장님,  
Jean-Paul Servais(장 폴 세르베) IFRS재단 감독이사회 위원장님,  
Teresa Ko(테레사 코) IFRS재단 이사회 부의장님,  
Takashi Nagaoka(타카시 나가오카) 일본 금융청 상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Jean-Paul Servais(장 폴 세르베) 위원장님이  
최근(10.19일) IOSCO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고 들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IOSC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위원회)

또한, IFRS재단, IASB, ISSB 관계자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 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SSB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회계기준원 김의형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II. IFRS재단과 한국

---

우선 저는, IFRS재단과 한국의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FRS재단은 2000년 설립된 이래  
지난 20여년 동안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IFRS재단이 만든 국제회계기준은  
회계정보의 품질(qua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을  
높이는 데에 기여해 온 한편,

현재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글로벌 회계기준의 단일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1년, IFRS재단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IFRS재단과 한국의 공동의 노력의 결실로,

글로벌 기업의 재무제표 이중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유·무형의 이익을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가진  
모범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의 근저에는  
IFRS재단과, 한국의 정부, 기업인, 회계 관계자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IFRS재단 관계자 분들은 물론,  
한국의 기업인, 회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Ⅲ. 새로운 도전과제 : 지속가능성 공시**

---

내외 귀빈 여러분,  
그 동안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우리가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들이  
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그리고 이를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의  
가치의 '공유'와 정책의 '공조'가 중요합니다.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된  
COP26(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지지 하에, IFRS재단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ISSB의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금년 3월에는  
기후변화 등 2개의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고,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IV.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한국의 역할 및 정책방향**

---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IFRS재단이 공개한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기업,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 국내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ISSB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ISSB 기준의 논의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정보제공자인 ‘기업’과 정보이용자인 ‘투자자’ 간  
유럽, 아시아, 미주 등 ‘지역’ 간  
균형 있는 의견 반영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정부는 ISSB 등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V. 맺음말

---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IFRS재단과 ISSB의 헌신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와 지지를 표합니다.

한국 정부, 기업인, 회계관계자들도  
IFRS재단과 함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